



## 스물네번째 이야기

###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 [신앙 에세이④]



외국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사랑에 대한 빛이 이 땅에 온 외국 유학생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으로 다시 갠아지고 있다. 서강대 국제교회(서강대 국제교회가 정식명칭)를 시작한 백인호 목사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Q 개척교회가 정말 어려운 요즘 어떻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실 수 있으셨나요?

A 2022년 2월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대학 한국어과 교수로 가는 길과 세네갈의 담임목사로 가는 길이 모두 코로나19와 여러 개인 사정으로 막히면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선교사님들을 위한 BEE 세미나에 집중하며 나름대로 은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양재 BEE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와 귀국하던 날, 성균관대 국제교회의 신기현 목사님이 전화해서 서강대에서 유학생 국제교회를 시작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서강대 근처에 지역교회도 섭외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유학생 선교를 위해 부르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함께 해온 서강대 기독교 교수님 가운데 세 분이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척교회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역이라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Q 서강대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현직에 계실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요?

A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실 학생들을 위해 크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학생들과 일대일을 열심히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탈진상태가 되면서 중단했고, 서강대 기독교 교수 모임과 BEE에만 집중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서강대 국제교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사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Q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BEE Korea의 베트남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집사로 베트남에서 BEE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베트남 성도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이후 매년 두 차례씩 베트남에 가면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교리론(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이 과목은 신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베트남을 가다 보니, 목사님들이 제게 목회 상담을 종종 했습니다. 집사로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2차 안식년에 맞추어 신학교에 입학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러셨군요. BEE Korea 덕분에 베트남 선교를 하시고, 베트남 목사님들 덕분에 신학을 하시고, 사학과 교수로 재직 하면서 헌신된 동료 교수와 함께 유학생 국제교회 담임 목회 까지 하게 되셨군요. 하나님의 열심이 놀랍습니다! 가족들은 목사님의 이런 은혜를 곁에서 보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A 가족들은 교수로서 방학 때마다 해외선교 나가는 것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종종 힘들어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번 서강대 국제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선교 하니 참 잘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Q 서강대 국제교회가 8월 13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혹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점들이 있으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A 교수 네 명이 헌신해서 시작할 때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케냐 학생과 일본 여학생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BEE Korea의 홍호희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장으로 헌신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주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이니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시작한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찬양 리더와 유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Q 시작할 때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정말 개척교회로 주님이 부르셨네요! 일본 학생과 케냐 학생은 어떻게 출석하게 되었나요? 서강대 학생만 출석할 수 있는가요?

A 일본 학생은 서강대 원로 교수님이 창립 예배 때 같이 온 불교 신자였습니다. 점차 마음이 열려서 셋째 주에 참석해서 지금 출석하고 있고요. 케냐 학생은 연대생인데 성대교회의 캐서린이 소개해서 두 번 만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셋째 주에 처음 출석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니까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다만 서강대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할 뿐입니다. 한국 학생들도 환영합니다. 유학생 처지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한국 학생이 있어야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친교도 나눌 수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Q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A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신촌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 하심에 감사, 드러지는 예배에 기쁨 부으시길
2. 히요리(일본 유학생,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매)가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3. 아놀드가 일대일을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의 든든한 제자로 성장하길
4. 수원에서 오는 성대팀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길
5. 찬양 리더를 보내주시고, 협력 사역하는 교수 네 분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교회 운영을 잘 감당하도록
6. 백인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주시길
7. 준비된 유학생들을 보내주시도록
8. '하나님의 말씀 전달' 줌 세미나(3명)가 시작 되었는데, 아름다운 동역자로 훈련받는 시간이 되길



교회 위치  
신촌감리교회, 6호선 대흥역 2번 출구에서 마포아트센터 방향으로 500m

[글쓴이 백인호 목사]



1992년 파리 1대학 사학박사 취득 후 1993~2022년 서강대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2000년 BEE Korea 사역을 시작하여 현재 BEE Korea 이사로 있으며, 2011년 KAICAM 목사안수 받은 후 2023년 서강대 국제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

BEE 소식

---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어나 야만어나 자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찾아온 사랑을 찾아 '인천', 선착순으로 20명 신청받고 있습니다. 인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걸음과 눈으로 확인하며 고백하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요!

문의: BEE 사무실(02-822-9480)